



C.H.A.M
Come & Help Arab Muslims

“아랍 무슬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WITH
ARAB
MUSLIMS

함께 기쁨은



OCT 2016
VOL.5

발행인: 김현성
편집: 정기은 디자인: 서응교
<http://www.chammission.org>
E-mail: chammission@gmail.com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4길 35,
202동 1403호

권두언

큰 아들의 실패

C.H.A.M 이사 하두형 목사(런던 워블던 한인교회)



누가복음 15장은 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은 큰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는 내용입니다.(눅15:2)

큰 아들은 성실했습니다. 탕자, 둘째 아들, 처럼 집을 나가지도, 재산을 요구하지도 않고 아버지 곁에 수종들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둘째가 돌아옵니다. 그 날도 첫째 아들은 여느 날과 같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풍류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 옵니다. 순간 서운한 생각이 지나갑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무엇이 잘 못 된 것일까요? 아버지를 성실히 섬긴 것이 잘 못이란 말일까요? 물론 아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심보단 방향성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에 관해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이 있다고 하나 바리새인을 따라갈 순 없읍니다.(눅18:12)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교회에서 열심이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칫 첫째 아들, 바리새인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지요.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고도 하지 않은 것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늘 못난 자식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거죠. 부모가 되어 보면 알게 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대문앞을 서성이며 둘째가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첫째는 전혀 느끼질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고도 하지 않으면 똑같은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선 지금도 ‘이슬람의 꺾임’에 허덕이는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모든 선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욱 많은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표칼럼

마나라 센터를 시작하며!!

C.H.A.M Mission 대표 김현성 선교사

오늘날 전 세계 무슬림 인구를 약 17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사역을 하면서 그 숫자를 생각하면 뭘지 모를 답답함이 있습니다. 동시에 무슬림 전도를 위한 방법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떠한 것이 최선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C.H.A.M Mission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C.H.A.M Mission’의 슬로건은 ‘아랍 무슬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기도 가운데 시작된 C.H.A.M Mission의 사역 중 하나가 바로 ‘마나라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사역입니다. 무슬림들 사회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의 삶을 공유하며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롭게 ‘문화 센터’ 사역을 계획하게 되었고, ‘마나라 센터’가 시작된 것 입니다. 지난 6월 본 선교회의 이사회를 통해 센터 사역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졌고, 센터를 위한 지역 선정 및 공간 임대, 허가증 등 센터 사역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지난 8월 13일(토) 정식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임으로 사역할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져서 센터 사역을 위해 함께 뛰고 있습니다.

‘마나라 센터’는 주위에 있는 요르단인, 시리아 난민 등 모든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청소년 캠프, 음악 교육(기타, 피아노 등), 언어 교육(영어, 한국어 등),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N.L.P 세미나, 가정 세미나, 부부 상담 및 케어, 가정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세미나와 부부 상담과 같은 사역은 지역의 가정 상담 센터와 연계하여 협력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의 부부 문제가 회복되어야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사무실



도서관



액티비티룸



세미나룸



클래스룸



17기 NLP 수료식

저희는 센터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을 돕고 섬길 것이며, 그에 따른 방법과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 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어 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마나라’는 아랍어로 ‘등대’라고 하는 뜻 입니다. 이 센터가 지역의 등대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잃어버린 무슬림 영혼들을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물질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장이야기

사랑을 키우는 공간 마나라센터

“저요, 저요”, “한번 더 하고 싶어요.”, “제 그림 보세요. 잘 그렸죠?”...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마나라 센터’는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 찹니다.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테이블 위에 놓인 흰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이미 도안된 그림에 색칠을 하거나 혹은 지점토로 만들기를 하는 등 아이들은 저마다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시작합니다.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이 한 것들을 보여 주면서 자랑하고 칭찬받고자 시끌벅적 해 집니다.

이렇게 개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함께 모여 5-10분 정도의 짧은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을 나누며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나눌 때는 어색하고 쑥스러워 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무언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몸을 움직이며 할 수 있는 놀이들을 하면서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다보면 어느덧 끝날 시간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고 센터에서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는 것 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도 단순하고 어찌보면 시시해 보일 것 같기도 한 놀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 보다 재미있고 신나는 시간입니다. 요르단의 일반 학교 정규 과정에 미술과 음악 수업이 없기에 아이들은 사설 학원에 가야지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흰 종이 한장과 색연필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은 즐거울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현지인 사역자를 보면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들의 성장 과정 속에 유익한 것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그 열정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관심있는 현지인들이 저희들을 돕고자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함께 할 수 있는지 문의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마나라 센터의 사역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이 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는 센터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나라 센터의 이야기는 계속 됩니다...



김쌤의 이슬람



하산의 아랍어

TALK TALK

아랍어 레터

خ	ح	ج	ث	ت	ب	ا
Hā	Hā	Gim	Tā	Tā	Bā	Alif
ص	ش	س	ز	ر	ذ	د
Ṣad	Ṣin	Sin	Zāi	Rā	Dāl	Dāl
ق	ف	غ	ع	ظ	ط	ض
Qāf	Fā	Gain	'Ain	Zā	Tā	Dād
ي	و	ه	ن	م	ل	ك
Yā	Wāw	Hā	Nūn	Mīm	Lām	Kāf

아랍어 숫자

٠	١	٢	٣	٤
0	1	2	3	4
sifr	waahid	eeth-nayn	thalaatha	arba'a
٥	٦	٧	٨	٩
5	6	7	8	9
khamssa	sitta	sab'a	thamaaneeya	tis'a





선교회소식 & 기도제목



1) C.H.A.M Mission 창립 1주년 감사 예배 및 이사회

본 선교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가 지난 6월 2일(목) 오전 7:00 서울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있었습니다. 1부 감사 예배와 2부 사역 보고 및 안건 회의, 3부 조찬 및 교제의 순서로 진행 되었습니다. 중동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단체가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중동 현지에 '마나라 센터' 오픈

지난 8월 중동 J국에 현지인들을 위한 문화 센터인 '마나라 센터'가 오픈을 하고, 센터를 통한 사역이 시작 되었습니다. 센터 사역을 위한 현지인 전임 사역자가 세워져서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슬림 영혼들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마나라 센터' 단기 사역자 모집

'마나라 센터' 사역에 함께 할 단기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미술 수업, 음악 수업 등을 섬겨줄 사역자와 영어, 한국어 등 교육을 담당해 줄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센터 사역을 위해 기부해 주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교회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장, 단기 선교 훈련생 모집

중동 아랍 무슬림 선교를 위해 헌신된 분들을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의 훈련은 중동 현지에서 직접 실시되며 사역과 삶에 필요한 아랍어, 아랍 문화, 무슬림 전도법등 이론과 실재가 통합된 총체적 훈련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의 사역자를 통해 직접 지도를 받게 됩니다. 훈련 기간은 단기 3, 6, 12 개월, 장기 2년 이상을 기준으로 실시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5) 선교회 회원 및 후원자 모집

본 선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 물질 후원 혹은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해 주실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선교회의 소식지와 중동 아랍 무슬림 사역에 관한 정보를 요청시 제공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 한국 스텝 모집

본 선교회와 함께 스텝으로서 다양한 부문에서 동역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선교와 아랍 무슬림에 관심이 있거나 자신의 재능을 선교회 사역을 위해 기부하길 원하시는 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희 선교회의 모든 스텝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연락 기다립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사후원 (5-9월)

김석한 목사 (평강교회)
김현덕 집사 (영광교회)
박기철 목사 (분당제일교회)
박동석 목사 (감동교회)
박종찬 집사 (감동교회)
박진선 집사 (감동교회)
박형진 교수 (횡설 트리니티)
신일수 집사 (감동교회)
유요한 목사 (서안교회)
윤동희 목사 (소망의빛교회)

이호석 집사 (감동교회)
장홍모 장로 (감동교회)
최복용 목사 (호산나교회)
한규동 목사 (남문교회)
김현성 선교사

일반후원 (5-9월)

김현진 김위식 노윤태
명유정 박희선 이난희
이숙영 이영배 이윤이
임지아 장사훈 전병천
정순행 최복동 이승연
양광교회
이상 가나다순

C.H.A.M 이사회

이사장 : 박동석 목사(감동교회)
 고 문 : 강정식 목사(새성남교회), 박기철 목사(분당제일교회)
 총 무 : 박형진 목사(햇불트리니티신대원)
 서 기 : 손병규 목사(헤브리처치)
 감 사 : 최환열 집사(온누리교회)
 이 사 : 김만석 장로(감동교회), 김석한 목사(평강교회),
 김현덕 집사(영광교회), 남형열 목사(주님교회),
 류종상 목사(작전중앙교회), 문단열 전도사(어메이징그레이스교회)
 박순규 목사(밀알교회), 박종찬 집사(감동교회),
 박진선 집사(감동교회), 박진우 집사(주영광교회),
 박희철 목사(함께하는가정운동본부),
 신일수 집사(감동교회), 신현 목사(강은교회),
 유요한 목사(서안교회), 윤동희 목사(소망의빛교회),
 이규한 목사(목양교회), 이은상 목사(은혜동산교회),
 이호석 집사(감동교회), 장홍모 장로(감동교회),
 정진오 목사(금발교회), 최복용 목사(호산나교회),
 추종식 목사(법인재단하늘채), 하두형 목사(영국원불탄한인교회),
 한규동 목사(남문교회) 이상 가나다 순

C.H.A.M 스텝

대표 : 김현성
 행정/재정 : 전영주
 문서/편집 : 정기은
 회원 관리 : 정연심
 디자인 : 서응교
 미디어 : 손미정, 최봉은

아랍 무슬림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come & Help Arab Muslims

후원방법1: 1 + 1 + 1 후원

월 1만원 재정후원 + 1일 1분 기도후원

후원방법2: 자활후원 (월 자동이체)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724701-01-412754

예금주: 김현성(C&H A.M MISSION)

- 처음 후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꼭 연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거래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보다 쉽게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선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담당자: 강해정 총무 (010-8730-8624)

사랑을 키우는 공간

마나라센터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훈련 모집

단기선교사

- 기간: 3, 6, 12개월
- 장소: 요르단
- 내용: 기초 아랍어, 아랍 문화 체험, 마나라 센터 지역 동참 등
- 절차: 서류 전형 / 사전 인터뷰 / 훈련 참여

장기선교사

- 기간: 2년 이상
- 장소: 요르단
- 내용: 본 선교회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 됨.
- 절차: 서류 전형 / 사전 인터뷰 / 현장 리서치(약 2주) / 최종 인터뷰 / 훈련 참여

*훈련 참여가 결정 되면 이사회를 거쳐 본 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하입 됩니다.



C.H.A.M
 Come & Help Arab Muslims

C.H.A.M 은 '아랍 무슬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의
 구호 아래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헌신된 단체 입니다.

이메일 | chammission@gmail.com

홈페이지 | www.chammission.org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127-82-92058

선교회, 연락처 | 010-8730-8624 (강해정 총무)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4길 35, 202동 1403호

“아랍 무슬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